

## 한국판 매우 민감한 사람 척도(K-HSPS-18)의 재타당화

손 욱 선

임상심리센터 이음

김 진 숙<sup>†</sup>

경북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정지희(2007)의 매우 민감한 사람 척도(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HSPS) 타당화의 한계에 따른 재번안 및 재타당화이다. 이를 위해 타당화 허가와 역번역 과정에 원칙도 저자 Aron과 Aron(1997)의 확인을 거쳐 성인 대상(N=925) 온라인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n=448)에서 원칙도 27문항 중 18문항을 추출하고, 자극흥분(Ease of Excitation)과 저감각역(Low Sensory Threshold), 심미적 민감성(Aesthetic Sensitivity), 눈치의 4요인을 도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n=477)에서 4요인 구조의 적합성과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에서 응답자의 민감성이 4계층의 난초(고민감; 22.6%), 건강한 난초(건강한 고민감; 3.1%), 튼튼(중민감; 54.7%), 민들레(저민감; 19.5%)로 분류되었고, 민감도 분류 기준점(5.25, 4.31)도 마련되었다. 이로써 K-HSPS-18은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도구임이 확인되었고, 후속 연구 활성화를 위해 10문항의 단축형 척도도 제시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미적 민감성 요인은 다른 요인과 상반되는 특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다차원 척도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4번째 요인인 눈치, 4계층 및 삭제된 문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민감성에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있음이 강하게 시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감각처리 민감성, 매우 민감한 사람, 민감성 척도, HSPS.

<sup>†</sup> 교신저자 : 김진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사범대학 신관 405호  
Tel: 053-950-5813, E-mail: flow@knu.ac.kr

유기체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환경자원을 활용해야 하므로, 환경을 지각하고 처리, 반응,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Greven et al., 2019). 그리고 유기체의 다른 모든 특성과 마찬가지로 환경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에도 상당한 개인차가 존재한다(Belsky et al., 2009; Ellis & Boyce, 2011). 그렇다면 이런 개인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개인이 환경자극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각과 처리의 민감성이 과할 때 오히려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과한 민감성은 치료 대상인가? 반대로 지각과 처리의 민감성이 낮거나 중간일 때는 어떤가? 민감성과 반응성의 개인차에 따라 서로 다른 양육 및 적응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199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 민감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아볼 수 있다. 환경 자극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 즉 ‘환경 민감성(Environmental Sensitivity)’을 다른 개념으로는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성(Biological Sensitivity to Context)’, ‘차별적 민감성(Differential Susceptibility)’, ‘감각처리 민감성(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이 있다(Pluess, 2015). 우선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성’은 환경 자극에 대한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들(예: 체온, 심박수, 혈압, 면역계 질환 여부, 체액의 신경전달물질이나 코티솔 수치, 신경전달물질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등)을 측정하여 개인차를 비교하였다(Del Giudice, Ellis, & Shirtcliff, 2011; Ellis & Boyce, 2011; Pluess & Belsky, 2009; Pluess, 2017). 이들 연구에서 민감성은 환경 조건에 적응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진화해온 기질적 특성으로(Boyce & Ellis, 2005), 민감성이 높은 경우 생애 초기부터 심리사회적 스트레

스와 역경이 많은 부정적 환경뿐만 아니라 협력적 정보나 사회적 기회와 같은 지원이 있는 긍정적 환경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반응성이 높음을 밝혔다(Pluess & Belsky, 2009). 다음으로 ‘차별적 민감성’은 ‘체질-스트레스(Diathesis-Stress)’와 ‘유리한 민감성(Vantage Sensitivity)’을 조합한 개념이다. 이들 연구도 부정적 환경의 영향(Belsky, 1997; Ellis & Boyce, 2011; Monroe & Simons, 1991; Pluess & Belsky, 2009)과 긍정적 환경의 영향을 모두 훨씬 크게 받는 기질이 있음을 밝혔다(Pluess, 2015).

한편, ‘감각처리 민감성(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이하 SPS)’ 연구에서 민감성은 고유성을 지닌 선천적 기질이자 성격이다. Aron과 Aron(1997)은 다양한 생물 종의 민감한 개체에 관한 연구, Kagan(1989)의 ‘높은 반응성 기질’ 영유아 연구, Jung(1913, 1921)의 내향성 개념, Eysenck(1964)와 Gray(1981) 등의 성격 연구 등을 아울러 SPS를 개념화하였다. 즉, SPS는 타고난 중추신경계가 예민하여 자극을 과하게 받기 쉽고 모호한 환경자극을 잘 알아차리며 정보처리의 수준이 깊고 정서적 반응이나 공감 반응이 높은 기질적, 성격적 특성이다(Aron, Aron, & Jagiellowicz, 2012; Homberg, Schubert, Asan, & Aron, 2016). Aron(1997)은 SPS가 높은 사람을 ‘매우 민감한 사람(Highly Sensitive Person; 이하 HSP)’이라고 명명하고, Jung(1913, 1921)의 내향성과 유사한 특성이라고 설명하였다(Aron, 2004; 2006).

구체적으로, Jung(1913, 1921)은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가 민감성에 있다고 하면서, 내향성과 민감성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Jung(1913, 1921)의 내향성이란, 환경자극을 심리내적으로 깊이 있게 처리하여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려는 성향으로, 민감한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더 민감하고 행동하기 전에 정보를 깊이 처리한다. 나아가 고도의 민감성으로 직관을 발휘하여 무의식과 깊이 교류하면 지고의 가치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지니며 더 영향력 있고 충만하며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민감성은 인류 1/4이 겪는 보편적 현상이나, 민감한 사람은 어린 시절 혼란스러운 경험을 통해 훨씬 심한 신경증을 겪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초기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러한 Jung의 통찰은 민감성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민감한 사람들은 환경 자극의 미세한 차이나 위협을 더 잘 알아차리고 자극처리의 수준이 깊어 신중하고 양심적이며 현명한 특성이 있으나, 자극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정서적 반응성이 강해져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소진되기 쉽다(Aron & Aron, 1997; Aron et al., 2012). 특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환경에 모두 반응성이 높으므로 생애초기 양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Aron et al., 2012; Del Giudice et al., 2011; Ellis & Boyce, 2011).

이처럼 민감성은 이미 1900년대 초반에 Jung이 통찰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측정되어온 중요한 특성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민감성의 양 측면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며, 그저 지나치게 긴장하고 심약하며 숫기 없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다(Aron & Aron, 1997; Aron et al., 2012). 그런데 민감한 사람이 부정적 양육환경에 노출되었다면 더 우울해하고 불안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긍정적 환경 또한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므로 이것은 불행

한 경험의 결과이지 민감성 자체의 특성은 아니다(Aron, 2013). 한편, 상담 장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람은 약 50%로 일반인구 집단에서의 비율(약 20%)보다 훨씬 높고(Aron et al., 2010), 특히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감한 사람 중에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과도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Aron, 2013). 민감함은 환경의 관점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므로(Aron, 2013), 민감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은 민감한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한다. 심지어 상담 장면에서도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자는 민감한 내담자를 그저 똑똑하고 성실하며 다루기 쉽다고 여기면서 민감성을 극복하거나 제거해야 할 특성으로 치부할 수 있다(Aron et al., 2010). 이와 달리 상담자가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면, 민감한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이 증폭될 때 자신의 심리내적 경험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일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서적 의미가 중요하며, 때로 효과적으로 세상의 요구에 적응하느라 자신의 욕구와 열망에 대해 알 기회를 잃고 오히려 주요 발달과업에 뒤처지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Aron et al., 2010). 또한 상담장면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부드럽고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민감하게 자기조절, 휴식과 회복, 자기주장, 정서인식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Aron et al., 2010). 따라서 환경 민감성의 생물학적 기질과 성격적 특성, 환경의 영향을 제대로 밝힌다면 때로 정신장애로 오진되는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자기관리와 대처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Smith, Sriken, & Erford, 2019). 특히 정신건강

중사자들이 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의 민감한 사람을 만났을 때 민감한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사례개념화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Liss, Timmel, Baxley, & Killingsworth, 2005; Listou Grimen, & Diseth, 2016). 민감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또한 중요한데, 특히 치료자는 명백한 신경증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민감성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Aron et al., 2010).

이처럼 정신건강 중사자들이 민감한 사람을 잘 구분하도록 돕는 방안을 제공하면서 민감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뢰롭고 타당하게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우 민감한 사람 척도(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이하 HSPS) 이전에는 민감성을 직접 측정할 도구가 없었고, 연구자들은 민감성의 결과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거나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환경 민감성은 개인이 처한 다양한 장면,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특성이므로 생리적 수치나 질적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만으로는 광범위한 연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양적 분석에서는 부정적 정서 질문지나 사회기술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민감성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감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환경 민감성 연구 가운데 유일하게, Aron과 Aron(1997)은 SPS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민감성을 직접 측정하려고 시도하였고 성인용 HSPS를 개발하였다. 이후 Pluess 등(2018)은 아동용 자기평정척도인 매우 민감한 아이 척도(Highly Sensitive Child Scale)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HSPS는 Aron과 Aron(1997)이 질적, 양적 방법을 혼용하여 동물 민감성 연구의 광범위한 생물학적 특성

을 개괄한 후 기질 및 성격과 관련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적용한 척도이다. 동물 민감성 연구에서는 어떤 계통이나 특별히 민감한 개체가 포함되어 있고 민감성은 생존에 적응적인 진화의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HSPS에 적용된 심리이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SPS의 기질적, 생리적 측면은 Eysenck와 Eysenck(1964)에서 출발하여 Gray(1981), Gray와 McNaughton(2000)이 발전시킨 강화민감이론(Reinforcement Sensitive theory)에 근거한다. 강화민감이론은 감정행동을 통제하는 세 가지 신경생리학적 동기 체계, 즉 행동접근체계(Behavioural Approach System; 이하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ural Inhibition System; 이하 BIS), 싸움-도주-경직 체계(Fight Flight and Freezing System; 이하 FFFS)로 구성된다. Gray와 McNaughton(2000)에 따르면, BAS는 보상체계 및 식욕자극을 조절하고 감각기관의 정보를 받아 몸을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뇌 부위와 관련이 있다. 즉, BAS가 활성화된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대상이나 관계 등에 호기심을 갖고 대담하며 추진력이 있다. FFFS는 모든 선천적 혐오자극을 회피하기 위해 활성화되고, BIS는 BAS와 FFFS를 자극하는 모든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다. 특히 BIS가 활성화된 사람은 위험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심할 경우 각종 불안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즉, BIS는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 멈추어서 보고 듣고 행동할 준비를 하는 시스템이며, Aron과 Aron(1997)은 ‘멈춤-확인 시스템(Pause to Check System)’이라고도 불렀다. 민감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BIS가 강하게 작용한다. BAS가 아주 약하고 BIS만 강하게 작용할 경우, 사람들은 차분하고 조용한 생활에 만족한다. 잠재적으로 BIS가 높으면서 BAS도 강하게 작용하는 경

우는 호기심이 강하고 대담하나 신중하고 불안하기도 하여 적정수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들은 나중에 지쳐버릴 것을 알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한다(Aron, 2017).

한편, SPS의 성격적 측면은 주로 Jung(1913, 1921)의 내향성이나 Eysenck와 Eysenck(1964)의 내향성-외향성, 신경증(정서적 불안정성)-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성격은 일관성 있게 개인을 타인과 구별해주는 사고, 감정, 행동이므로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감하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내향적이고 부정적 정서성 및 신경증이 높으며 안정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Aron, & Aron, 1997). 이렇게 기질 및 성격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HSPS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인분석과 구성타당도, 잠재계층 분석, 번안 타당화 순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Smith 등(2019)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HSPS의 타당화가 포함된 29개의 연구를 모두 검토한 결과, HSPS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다. 이들 연구의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Smith et al., 2019).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molewska와 McCabe, Woody(2006)의 연구를 제외하면, 요인분석을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설명력과 요인 적합도가 낮은 편이었다. Aron과 Aron(1997)은 단일차원으로 문항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Smolewska 등(2006)의 3요인 모델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지지하면서도 요인간 내적 합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분석하기를 제안했다. 3요인은 각각 저감각역(Low Sensory Threshold; 이하 LST), 자극흥분(Ease of Excitation; 이하 EOE), 심미적 민감성(Aesthetic Sensitivity; 이하 AES)이다. LST는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성, EOE는 배고픔이나 외부의 요구에 압도되는 특성, AES는 미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감동받는 특성을 의미한다.

표 1. HSPS(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선행연구의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i>n</i>	<i>m(sd)</i>	설명량(%)	요인수	항목수	<i>n</i>	Model	$\chi^2/df$	CFI	GFI	RMSEA
Aron & Aron (1997)	172	4.28(.81)	54	1	27						
Aron & Aron (1997)	109	4.38(.74)	47	1	27						
Meyer, Aichenbrenner, & Bowles (2005)	156		48.4	4	19						
Smolewska et al. (2006)	380			3	25	442	3	3.28	.97		.07
Liss, Mailloux, & Erchull (2008)					27	201	3	1.7	.81		.06
Evans & Rothbart (2008)	297			2	27	297	2	2.50	.83		.07
Booth, Standage, & Fox (2015)	185			3	21						
Sobocko & Xenlenski (2015)	319		39.5	3	25						
Hanes (2016)	119	4.38(.74)	23.7	1	27	192	1	1.92	.64		.086
Takahashi (2016)	324	4.56(.67)	-	3	19	369	3	3.79	-	.86	.087

Smolewska 등(2006)에서 민감성은 BIS와만 비례하고 AES는 개방성과 큰 정적 상관, LST와 EOE는 정서적 안정성과 부적 상관, LST와 BIS 간의 상관은 신경증의 공분산으로 거의 설명됨을 확인하였다.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은 민감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luess 등(2018)은 민감성이 BIS, BAS와 모두 상관이 있고 LST는 BIS, EOE와 AES는 BAS와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Lionetti 등(2018)과 Pluess 등(2018)은 민감성의 요인별 패턴에 따라 집단이 분류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다. Aron 팀의 연구초기에는 대개 HSPS 점수 상위 20~25%에서 ‘고민감’과 ‘보통민감’을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Pluess 등(2018)이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고민감 30%, 중민감 40%, 저민감 30%로 제안하였다. Lionetti 등(2018)도 906명의 성인 표본에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고민감(31%, 난초), 중민감(40%, 튜립), 저민감(29%, 민들레)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HSPS는 다양한 언어로 번안되었다. 비영어권 중 한국과 유사한 동양 문화를 공유하는 일본판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 $n=319$ )에서 3요인으로 고정할 때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인 8문항을 삭제하였고 Cronbach  $\alpha=.84$ 였다. 1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n=369$ )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문항구조로 3요인(LST, EOE, AES)이 가장 적합하였으나,  $\chi^2/df=3.78$ , GFI=.83, AGFI=.78, RMSEA=.099로 요인 적합도는 낮았다(Takahashi, 2016). 인접 국가인 러시아판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 분석( $n=430$ )에서 14문항을 삭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 $n=430$ )을 실시하였다. 2요인일 때,  $\chi^2/df=1.42$ , NFI(TLI)=

.97, CFI=.98, RMSEA=.03로 적합도가 높았다(Ershova, Yarmotz, Koryagina, Shlyakhta, & Tarnow, 2018). 그러나 요인1과 2에 포함된 문항이 선행연구의 분류와 잘 맞지 않고 AES를 비롯한 민감성의 긍정적 요인을 측정하는 항목이 모두 제거되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HSPS가 타당화된 바가 있으나, 정지희(2007)가 타당화한 척도 15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HSPS, HSP 척도, Highly Sensitive, 감각처리 민감성, SPS’를 주요어로 검색했을 때 정지희(2007)의 연구를 언급한 논문은 총 5편이었다. 그 가운데 김혜리(2017)와 강민지(2019)는 중간소음 중지요구 행동 연구에서 Smolewska 등(2006)의 3요인, 25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과제 수행의 개인차(김영준, 2019)와 시간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김영일, 김영준, 김경일, 2019) 연구에서도 원칙도 HSPS 27문항을 실시하여 정지희(2007)와는 다른 15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강아미(2019)의 SPS와 자기수용, 정서경험의 관계 연구에서도 27문항 전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합하면, 환경 민감성은 개인이 처한 다양한 장면 및 심리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특히 정신건강 영역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내의 환경 민감성 관련 연구는 주로 보육이나 감각재활 영역에서 차별적 민감성 연구에 그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판 HSPS 척도가 3요인, 15문항으로 타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화된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희(2007)의 타당화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한국판 HSPS는 선행연구와 이질적인

대상인 만18~60세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다. 정지희(2007)가 주요하게 비교분석한 선행연구인 Smolewska 등(2006)은 만19.7±2.9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HSPS는 성인용으로, 성인 전체의 활용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비교 가능한 연령대의 대학생을 포함하여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서 밝힌 자료로 확인해보건대, 원칙도 개발자의 허가와 의도에 맞게 번역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역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측정 자료에서 기존에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탐색적 요인분석)과 그 결과가 적합한지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일 대상에게서 얻은 동일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척도 개발 및 타당화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을 다른 표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요인의 수를 3요인으로 고정한 후 요인적재치(.40)가 낮은 12문항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함으로써, 문항의 의미와 응답자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 다섯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의 깊게 다룬 BAS/BIS를 상관분석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연구의 주요 개념이 신뢰성 있게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섯째, 평균과 표준편차와 같은 기본적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민감도가 높거나 낮은 점수의 분포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는 Aron(2017)을 비롯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감성을 설명하는 단행본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민감성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Pluess 등(2018)의 아동용 척도가(HSC)가 번안 타당화 되어(김경민, 송지은, 조은영, 2020) 아동발달 과정의 중요

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특성과 민감성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민감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민감성과 환경 적응 및 부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심리치료 분야(Liss et al., 2005; Listou Grimen et al., 2016; Smith et al., 2019)에서는 관련 연구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민감한 내담자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 및 치료 방식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경험적 토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활성화가 촉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척도의 타당화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통계측정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각처리 민감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HSPS를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 재번안하여 재타당화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HSPS의 타당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여 후속 연구에서 민감성을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의 민감성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한국인의 민감성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기대해볼 수 있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공유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학생들에게는 수업 중에 연구 참여를 부탁하여 성적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고, 일반성인은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게는 희망에 따라 통계분석이 끝난 뒤 연구결과에 대한 안내와 개개인별 분석 자료를 메일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문 참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는 총 925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560명(60.5%), 남성은 365명(39.5%)이었고 연령 분포는 만 18세~68세, 10대 104명, 20대 485명, 30대 125명, 40대 135명, 50대 69명, 60대 7명으로 평균 연령은 29.97±11.37세였다. 학력은 고졸 47명(5.1%), 전문대생 303명(32.8%), 전문대졸업 46명(5.0%), 4년제 대학생 195명(21.1%), 4년제 대학 졸업 139명(15.0%), 석사 재학생 44명(4.8%), 석사 졸업 이상 151명(16.2%)이었다. 대학생이 498명(53.8%)이었고 직장인 213명(23.0%), 전문직 103명(11.2%), 주부 62명(6.7%), 무직이나 견습생 37명(4.0%),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가 12명(1.3%)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상권이 695명(75.1%)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141명(15.2%), 충청권 44명(4.8%), 강원권 20명(2.2%), 전라권 18명(1.9%), 제주 7명(0.8%) 순이었다.

#### 연구절차

HSPS의 타당화를 위해 원척도 개발자인 Elein Aron과 Arthur Aron에게 번안 및 타당화 연구를 허가받은 후, 영문판 HSP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번역-역번역-개발자의 확인-재번역 과정을 거쳤다. 먼저 심리학 전공의 이중언어 사용자가 본 척도를 한글 번역하고, HSP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와 박사수료 이상 총 4명이 수정하였다. 이후

심리학 전공의 또 다른 이중언어 사용자가 역번역하여 원척도 개발자의 피드백을 받았다.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갖는 단어를 수정하고(예: 복잡한-복합적인) 개발자가 조언하는 HSP의 반응 양식을 참고하여(예: 13.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성향으로 인해 놀라워하지 않는 편이므로 비자발적인 신체적 반응에 가까운 ‘깜짝 놀라다’, 19.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반응이 아니라 원인 없이 불쾌한 반응에 가까운 ‘불유쾌하게 각성된다’ 등) 재수정하였고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어에 능숙한 상담 전공 교수 1인으로부터 자문받은 후에 본 연구자가 문항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번안 과정을 완료한 후에 7명의 성인에게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의뢰하여 문항 이해와 해석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 설명문,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HSPS, HSP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설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 총 925명의 데이터 중 SPSS 18.0의 약 50% 케이스 선택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 448명, 477명씩 두 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t*-검증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두 표본(A, B)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A에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표본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시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전체 집단에 대해 K-HSPS-18의 요인점수에 기반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초 설문 시작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연구 참여



자 가운데 일부에게 K-HSPS의 재검사를 진행하여 수집된 총 164명의 데이터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과 준거타당도 확인, 탐색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Amos 18.0, 잠재계층 분석을 위해서는 Mplus 6.1을 이용하였다.

#### 측정도구

##### 매우 민감한 사람 척도(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HSPS)

HSPS는 SPS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 27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보통이다), 7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mith 등(2019)의 연구에서 27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다.

##### 한국판 성격 6요인 척도 단축형 (HEXACO-PI-R 60문항)

성격 5요인 모델 연구(Goldberg, 1990)에서 사용한 어휘를 재분석하여 성격구조의 6요인 모델(HEXACO)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Ashton & Lee, 2001). HEXACO는 5요인 모델에 정직-겸손성(Honesty-Humility)을 더하여 민감한 사람들의 양심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5요인 모델에서는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요인 내에 긍·부정 정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원만성(Agreeableness)과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HEXACO에서는 긍정적 정서조절을 원만성으로 분명하게 편입하여 요인의 단일성을 높였다. 더불어 6개의 성격 요인마다 각 4개의 하위요인이 있어 성격과 다른 변인간의 분석이 다양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 Lee와 Ashton(2004)이 개발하고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국내 타당화한 HEXACO-PI의 최신 버전인 HEXACO-PI-R 단축형 60문항을 활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정직-겸손성,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의 6요인 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효정(201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정직-겸손성 .70, 정서성 .77, 외향성 .65, 원만성 .78, 성실성 .77, 개방성 .72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직/겸손성 .75, 정서성 .77, 외향성 .80, 원만성 .78, 성실성 .78, 개방성 .75이다.

#####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억제체계 척도(BAS/BIS scale)

본 연구에서는 행동 활성화 및 억제 체계를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BAS/BIS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대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BAS/BIS척도를 사용하였다. BAS는 '추동' 4문항, '보상민감성' 5문항, '재미추구' 4문항이고, BIS는 단일요인 7문항이다. '추동'은 바라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강한 열망과 그것을 지속하는 것, '보상민감성'은 보상받을 기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 '재미추구'는 새로운 보상에 대한 열망과 잠재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접근 의향을 의미한다. 2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BIS 척도는 2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다. 이수경과 양혜정(2019)의 성인 대상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Cronbach  $\alpha$ 는 추동 .78, 보상민감성 .84, 재미추구 .82, BAS 전체 .87, BIS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순서대로 .71, .76, .70, .84, .80이다.

### CES-D

우울척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수정 보완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다양한 우울 경험을 0점(극히 드물다)에서 3점(거의 대부분 그렇다)까지로 응답하는 Likert 4점 척도로, 역채점 4문항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표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전경구 등의 연구(2001)에서 성인 표본과 대학생 표본에서의 Cronbach  $\alpha$ 는 모두 .91, 박수진과 김종남(2018)에서 .91, 본 연구에서는 .93이다.

### STAI-Y

불안 측정을 위해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 신동균(1978)이 변안 표준화한 상태-특성불안 척도 중 비교적 안정적인 불안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1점(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의 범위이고 총 20문항 중 역채점 10문항을 포함한다. 김정택, 신동균(1978)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6, 이경희(2017)에서는 .87, 본 연구에서는 .95이다.

## 결 과

###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A의 각 문항 평균은 3.51~5.31이었고 표준편차는 1.23~2.00으로 나타나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양호하였다. 문항간 상관분석에서 8번 문항의 상관이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문항제거시 내적 합치도(.87)에 큰 차이가 없고, AES의 문항은 전체 척도의 요인 적합도 및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Takahashi(2016)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27문항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 탐색적 요인분석

주요 비교 선행연구인 Smolewska 등(2006)의 방식에 따라, 주성분분석, 사각회전(oblimin oblique rotation)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선택은 기본적으로 Smolewska 등(2006)에 따라 고유값(1.0 이상), 요인적재치(.35 미만)를 기준으로 하였고,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와 요인적재치의 차이(.10 미만)도 고려하였다. 처음 27문항은 설명량이 55.69%인 7요인이었고, 단일요인을 가정할 시 요인적재치 .35 미만인 문항은 19개이고 설명력은 23.44%였다. 스크리 도표(고유값 6.65, 2.37, 1.38, 1.33, 1.24, 1.07, 1.00)를 고려하여 고정요인 수를 1에서 4까지 변동하였을 때 일관성 있게 요인적재치가 낮은 항목인, 12번(당신은 양심적인가요?), 20번(배가 많이 고플 때 당신은 집중력이나 기분이 흐트러지는 강한 반응이 일어나나요?), 24번(당신은 혼란스럽거나 압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생활을 정돈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나요?), 27번(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당신을 예민하거나 수줍은 아이로 보았나요?)을 우선 제거하였다.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6번(당신은 카페인에 특히 민감한가요?), 18번(당신은 폭력적인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인가요?)을 제거하였다.

4단계부터는 문항선택 기준에 따라 한 문항씩 제거해 보면서, 한 요인으로 묶인 항목들이 선행연구의 문항들과 일치하는지, 강력하게 한 요인이 되려는 문항에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제거하였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요인적재치가 낮더라도 다른 문항 묶음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는 8번과 17번 문항은 제거를 보류하였다. 상대적으로 요인적재치간 차이가 작고 제거할 때 요인 수가 줄거나 설명력이 높아지는 순서대로, 21번(삶의 변화가 당신을 뒤흔드나요?), 5번(하루가 너무 바쁜 날, 당신은 침대 속이나 어두운 방 안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피하고 자극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물러날 필요를 느끼나요?)을 제거하였다. 각 단계에서 2, 3, 17번 문항이 해체되지 않았고 3요인으로 고정하면 설명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 문항씩 제거해도 4요인이고, 2문항을 한 번에 제거하면 해당 요인의 신뢰도가 떨어져 결국 3문항을 한 번에 제거해야 했다. 눈치 요인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낮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고 Smolewska 등(2006)을 제외한 선행연구들도 내적 합치도가 낮은 편이

므로 세 문항 모두를 최종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8번 문항(당신의 내적 삶은 풍요롭고 복합적인가요?)은 Jung(1913)의 내향인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다. AES의 다른 문항과 해체되지 않고 동일 요인으로 묶이면서도 요인적재치는 낮은 점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응답을 일일이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의 AES에 해당하는 문항 점수가 높고 EOE 문항 점수는 낮으면서 총점이 높은 응답자가 이 문항에 높은 점수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8번 문항은 Aron 등(1997)과 Jung(1913)의 건강한 민감성을 묻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으므로, 설명량(55.23%)이 증가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제거하지 않았다. 6단계에서 문항별 요인부하량과 공통성,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으로 일본판(Takahashi, 2016)과 유사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남은 18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최종 채택된 18개의 문항은 선행연구의 3요인을 포함하는 4요인 구조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문항 내용을 고려하여 1요인은 EOE, 2요

표 2. 문항 제거의 각 단계별 통계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남은 문항 수	27	23	21	20	19	18
제거한 문항의 번호	-	12, 20, 24, 27	6, 18	21	5	11
KMO	.87	.87	.87	.86	.86	.85
Approx. $\chi^2$	3492.49	3075.70	2833.97	2641.74	2451.06	2283.27
df	351	253	210	190	171	153
Sig.	.000	.000	.000	.000	.000	.000
요인 수	7	6	5	4	4	4
설명량(%)	55.69	56.93	55.12	51.10	52.21	53.19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단일 요인		4 요인				
	요인 부하량	공통성	EOE	AES	LST	눈치	공통성
23	.71	.50	.84	-.00	-.31	.11	.71
16	.66	.44	.77	.02	-.28	.17	.61
14	.68	.46	.75	-.12	-.40	.04	.63
19	.64	.42	.63	.16	-.34	.14	.49
26	.55	.31	.62	-.05	-.32	.08	.39
22	.34	.11	.14	.80	-.23	.17	.68
10	.32	.10	.17	.77	-.19	.10	.63
15	.12	.01	-.08	.51	-.05	.47	.50
8	-.12	.01	-.30	.47	-.04	-.06	.31
13	.53	.28	.25	.10	-.75	-.02	.58
7	.63	.40	.37	.17	-.73	.20	.53
1	.59	.35	.32	.04	-.66	.40	.53
9	.63	.40	.45	.19	-.65	.06	.47
25	.68	.47	.58	.25	-.64	-.12	.62
4	.46	.22	.18	.10	-.60	.31	.41
2	.24	.06	-.02	.26	-.24	.70	.55
3	.54	.29	.45	-.18	-.40	.55	.55
17	.42	.18	.35	.06	-.23	.54	.38
고유값	5.00		5.00	2.14	1.31	1.14	
설명량(%)	27.76		27.76	11.86	7.25	6.31	

주. EOE = 자극 흥분; AES = 심미적 민감성; LST = 저감각역.

표 4.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신뢰도	
	문항 제거시 $\alpha$	Cronbach $\alpha$
23 당신은 한꺼번에 많은 일이 일어나면 불쾌해지나요?	.74	.81
16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도록 할 때 당신은 짜증이 나나요?	.76	
14 당신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당황하나요?	.75	
19 당신 주변에 많은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불유쾌하게 각성되나요?	.80	
26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는 동안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당신은 몹시 긴장되거나 떨려서 평상시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편인가요?	.81	
22 당신은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작품을 알아보고 즐기니까?	.41	.62
10 당신은 예술작품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나요?	.47	
15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을 불편해할 때, 좀 더 편안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당신은 잘 아는 편인가요? (조명이나 좌석을 바꾸는 것처럼)	.58	
8 당신의 내적 삶은 풍요롭고 복잡적인가요?	.66	
13 당신은 쉽게 깜짝 놀라나요?	.73	
7 당신은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천, 가까이에서 울리는 사이렌 같은 것에 쉽게 압도되나요?	.71	.77
1 당신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극에 쉽게 압도되나요?	.73	
9 당신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편해지나요?	.72	
25 당신은 큰 소음이나 혼란스러운 장면 같은 강렬한 자극에 곤혹스러우나요?	.73	
4 당신은 통증에 좀 더 민감한 편인가요?	.76	
2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미묘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편인가요?	.40	.45
3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 편인가요?	.28	
17 당신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몹시 노력하니까?	.39	
전체	.85	

표 5. 요인간 상관분석 결과

	EOE	AES	LST	눈치
EOE	1			
AES	0	1		
LST	.50***	.25***	1	
눈치	.30***	.27***	.42***	1

주. EOE = 자극 흥분; AES = 심미적 민감성; LST = 저감각역.

\*\*\*  $p < .001$ .

인은 AES, 3요인은 LST로 선행연구와 비교 가능한 동일 요인명을 사용하였고, 4요인은 눈치로 명명하였다. EOE(자극 흥분)는 내외부의 요구에 압도되어 불쾌하거나 수행이 저하되는 특성, AES(심미적 민감성)는 삶의 미적이고 섬세한 측면을 알아차리고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처리하는 특성, LST(저감각역)는 내외부의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은 특성, 눈치는 상황에 대해 인지, 정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을 의미한다. 즉, 눈치는 LST에 비해 상황이나 관계 요소를 포함하고 적극적 주의 기울이기, 즉 눈치가 필요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Smolewska 등(2006)의 일본판과 같이 AES와 EOE 간 상관은 유사한 수준이고(.06) 다른 요인 간 상관은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났다(표 5).

확인적 요인분석

HSPS는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총 27개 문항 중 9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8개의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적합도 지수가 .82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2271.29( $p < .001$ )로 나타나 해당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였고, 왜도, 첨도 기준 정규성 조건도 충족하였다. HSPS의 4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CMIN/df는 2이상, CFI와 GFI, ACFI, NFI, IFI가 모두 .90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가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표 1에 제시된 선행연구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 6. 모형 적합도의 비교

	<i>n</i>	$\chi^2$	<i>df</i>	<i>p</i>	CMIN/ <i>df</i>	RMR	GFI	AGFI	CFI	TLI	NFI	IFI	AIC	RMSEA(90% CI)
1요인 모델	477	1056.88	135	.000	7.83	.23	.76	.69	.57	.51	.54	.58	1128.88	.120(.113-.127)
3요인 모델	477	659.61	132	.000	4.50	.20	.86	.82	.75	.72	.71	.76	737.61	.092(.085-.099)
4요인 모델	477	554.30	129	.000	4.23	.17	.88	.84	.80	.77	.76	.80	638.23	.083(.076-.090)
4요인 모델 (대학생만)	254	343.46	129	.000	2.66	.18	.87	.83	.82	.78	.74	.82	427.46	.081(.071-.092)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단일요인은 적합도가 매우 낮았고, 4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HSPS는 성인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척도개발 및 타당도 검증은 주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53.8%를 포함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선행연구 결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집B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대학생 표집에서도 마찬가지로 4요인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전체 성인집단의 적합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준거타당도

K-HSPS-18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p < .001)$ 이었다. 4요인 중 EOE 요인의 상관은  $.75$ , LST 요인은  $.73$ , AES 요인은  $.66$ , 눈치는  $.76$ 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최종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기초통계량을 표 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Big5 모델에 비해 구성개념이 명확해진 HEXACO를 활용하여 성격변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HSPS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내향적이고 신경증(부정적 정서성)이 높았다. HSPS 점수는 (부정적)정서성과 정적상관이 있고 외향성과 부적 상관, 원만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4요인은 HEXACO와의 상관을 통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OE는 정직/겸손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지적 호기심과 부적상관, (부정적)정서성과는 정적상관이었다. LST도 정서성과는 정적 상관, 외향성이나 원

만성과는 부적상관인 점은 EOE와 유사하나, 정직/겸손성이나 성실성과 대체로 상관이 없었다. 눈치는 성실성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정서성과 대체로 정적상관이나 구체적으로는 두려움, 불안이 오히려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4개의 요인 중 가장 긍정적 특성을 포함하는 AES는 도덕성, 감수성과는 정적상관, 불안, 의존성과는 부적상관이었고, 외향성 및 개방성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원만성과는 대체로 상관이 없었다.

한편 행동 억제 및 활성화체계(BIS/BAS)와 민감성의 상관분석 결과, HSPS가 BIS(.55), BAS(.27)와 모두 상관이 있었다. HSPS 평균은 BAS의 하위 요인인 보상민감성(.38), 추동(.12), 재미추구(.16)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EOE와 LST, 눈치는 BIS(각각 .59, .46, .44)와 BAS(각각 .08, .21, .18) 모두와 상관이 있었다. AES는 BAS(.33)와 정적상관, BIS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AES와 LST, 눈치는 BAS의 하위요인인 보상민감성, 추동, 재미추구와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EOE는 BAS의 하위요인 중 보상민감성(.25)과 정적상관, 추동(-.08)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불안(STAI-Y)과 우울(CES-D)은 HSPS 점수와 각각  $.30$ ,  $.21$ 의 정적상관이 있었고 EOE(각각  $.43$ ,  $.35$ ), LST(각각  $.29$ ,  $.19$ ), 눈치(각각  $.20$ ,  $.10$ )와는 정적상관이지만, AES(각각  $-.21$ ,  $-.18$ )와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 잠재계층분석

한국인 민감성의 정도에 대한 적절한 잠재계층 수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준거지수와 우도비 검증 통계량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

표 7. K-HSPS-18의 기초통계량 및 HEXACO, BIS/BAS, STAI, CES 간의 상관

		K-HSPS-18	EOE	AES	LST	눈치	
평균(표준편차)	남성	4.55(.72)	4.50(1.07)	4.66(.96)	4.22(1.02)	5.16(.91)	
	여성	4.92(.71)	4.82(1.14)	4.83(1.01)	4.87(1.02)	5.30(.96)	
	전체	4.77(.74)	4.69(1.12)	4.76(.99)	4.61(1.07)	5.24(.94)	
HEXACO-PI-R	정직/겸손성	진실성					
		도덕성		-.07*	.14**		
		청렴성	-.13***	-.14***		-.12***	-.09*
		겸손성	-.12**		-.22***		-.08*
		전체	-.07*	-.11**			
	정서성	두려움	.45***	.42***		.48***	-.20***
		불안	.43***	.46***	-.07*	.38***	-.36***
		의존성	.34***	.39***	-.08*	.31***	.24**
		감수성	.22***	.12*	.17***	.20***	.11**
		전체	.56***	.54***		.53***	.34***
	외향성	사회적 표현성	-.20***	-.38***	.24**	-.20***	-.08*
		사회적 대담성		-.27***	.30***		
		사회성		-.15***	.16***		
		활력	-.14***	-.33***	.26***	-.12***	-.09*
		전체	-.15***	-.39***	.33***	-.15***	
원만성	관용성	-.16***	-.20***	.09**	-.16***	-.12***	
	온유성	-.11**	-.13***		-.10**		
	융통성						
	인내성	-.19***	-.20***		-.21***	-.07*	
	전체	-.17***	-.19***		-.17***	-.07*	
성실성	치밀성		-.16*	.13***		-.19***	
	근면성		-.15***	.19***		.13***	
	완벽성	.13***	-.09**	.21***	.11**	.27***	
	신중성	-.08*	-.19***		-.09**	.12***	
	전체		-.20***	.18***		.24***	
개방성	심미성	.18***		.47***	.08*	.08*	
	지적 호기심		-.07*	.25***			
	창조성	.18***		.47***		.08*	
	비관습성	.07*		.31***			
	전체	.17***		.55***			
BIS/BAS	BAS	보상민감성	.38***	.25***	.21***	.32***	.26***
		추동	.12***	-.08*	.30***	.08*	.11**
		재미추구	.16***		.30***	.11**	.11**
		전체	.27***	.08*	.33***	.21***	.18***
	BIS	전체	.55***	.59***		.46***	.44***
STAI-Y		.30***	.43***	-.21***	.29***	.20***	
CES-D		.21***	.35***	-.18***	.19***	.10**	

주. K-HSPS-18 = 한국형 매우 민감한 사람 척도; EOE = 자극 흥분; AES = 심미적 민감성; LST = 저감각역; HEXACO-PI-R = 성격 6 요인 척도; BIS/BAS =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 척도; STAI-Y = 특성불안 척도; CES-D = 우울척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8. 잠재 계층 분석 결과

모델	AIC	BIC	Entropy	LMR( $p$ )	BLRT( $p$ )	계층의 비율					
						1	2	3	4	5	6
2계층	10023.06	10085.81	.599	$p < .001$	$p < .001$	57.3	42.7				
3계층	9934.78	10021.65	.646	$p = .000$	$p < .001$	23.8	56.4	19.9			
4계층	9875.47	9986.48	.714	$p = .001$	$p < .001$	22.6	3.1	54.7	19.5		
5계층	9841.86	9976.10	.711	$p = .331$	$p < .001$	20.0	3.4	52.1	19.2	5.2	
6계층	9833.94	9993.21	.741	$p = .309$	$p = .040$	19.8	3.6	52.1	19.1	5.2	0.3

다. 유의확률과 적합도, 계층에 대한 설명력을 고려하였을 때 4개 잠재계층 모형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선택하였다. 각 계층의 특성과 선행연구(Lionetti et al., 2018)의 명명을 고려하여 계층1(22.6%)은 난초(고민감), 계층2(3.1%)는 건강한 난초(건강한 고민감), 계층3(54.7%)은 틀림(중민감), 계층4(19.5%)는 민들레(저민감)로 명명하였다(그림 1). 난초와 건강한 난초를 고민감(25.7%)으로 분류한 후 ROC 분석 결과, 고-중-저민감의 탐색적 절단점(Exploratory cut-off scores)은 평균값

으로 각각 5.25, 4.31이었다.

#### 단축형 K-HSPS-10

Pluess 등(2018)이 제시한 12문항 단축형 척도(2, 7, 8, 10, 14, 16, 18, 21, 22, 23, 25, 26번)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K-HSPS-18보다 요인적 재치와 설명량, 제거시 내적합치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8문항을 추가로 삭제한 후 단축형 K-HSPS-10을 도출하였다(표 9). 10개 문항은 선행연구의 3요인 구조로 설명량은 6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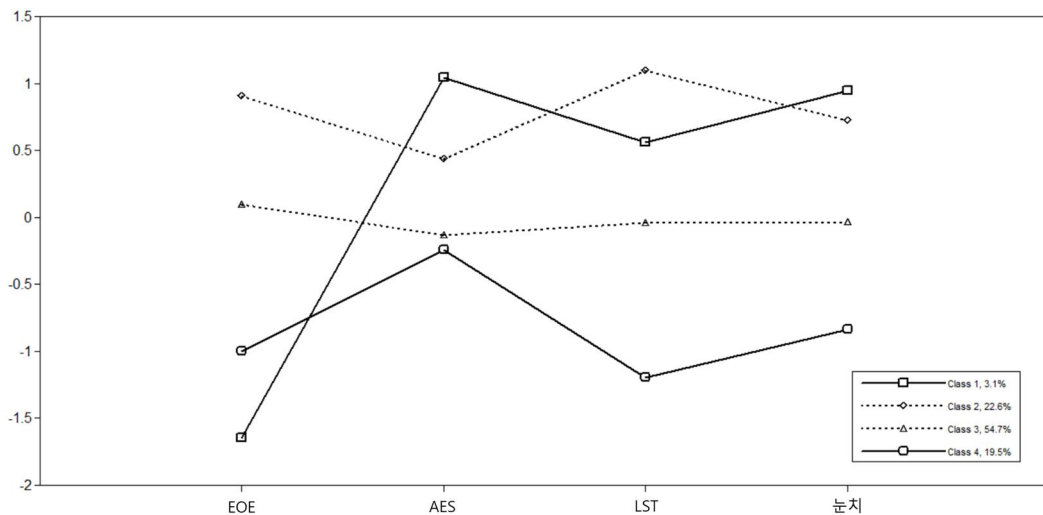


그림 1. 계층에 따른 K-HSPS-18(Korean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18)의 요인점수 분포



표 9. 단축형 K-HSPS-10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번호	3 요인				신뢰도	
	EOE	LST	AES	공통성	문항 계수 <i>a</i>	Cronbach <i>a</i>
23	.87	.11	-.38	.76	.72	.81
16	.81	.17	-.30	.67	.76	
14	.79	.03	-.42	.65	.76	
19	.71	.25	-.39	.53	.81	
10	.15	.89	-.19	.79	-	.74
22	.15	.88	-.23	.78	-	
7	.36	.18	-.76	.58	.72	.73
13	.24	.11	-.74	.57	.67	
9	.39	.25	-.74	.55	.64	
25	.56	.28	-.73	.61	.67	
고유값	3.86	1.53	1.10			
설명량(%)	38.60	15.34	10.98			

주. EOE = 자극 흥분; AES = 심미적 민감성; LST = 저감각역.

이고, K-HSPS-18의 총점과 3개의 요인 각각과  $p < .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총점  $r = .93$ , EOE  $r = .97$ , AES  $r = .87$ , LST  $r = .94$ ). 하위요인간 상관은 EOE와 LST( $r = .53$ ), AES와 LST( $r = .27$ ), AES와 EOE( $r = .16$ )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비교적 높은 모형 적합도를 보였고(표 1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 (< .001)$ 였다. 한편, 단축형 10문항의 잠재계층분석은 뚜렷한 3계층으

로 분류되었고, 3계층간 ANOVA에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계층은 Pluess 등(2018)의 연구에 따라 고민감(27%), 중민감(52.7%), 저민감(20.3%)으로 명명하였고, 고민감(5.2~6.9), 중민감(3.8~5.3), 저민감(1.2~4.0)의 점수범위와 정규분포곡선을 종합한 탐색적 절단점(Exploratory cut-off scores)은 평균값으로 각각 5.24, 4.02점으로 나타났

표 10. 단축형 K-HSPS-10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i>n</i>	$\chi^2$	<i>df</i>	<i>p</i>	CMIN/ <i>df</i>	RMR	GFI	AGFI	CFI	TLI	NFI	IFI	AIC	RMSEA(90% CI)
3요인 모델	477	103.48	32	.000	3.23	.11	.96	.93	.94	.92	.92	.94	149.48	.069(.054-.083)
3요인 모델 (대학생만)	254	67.43	32	.000	2.11	.12	.95	.92	.95	.93	.91	.95	111.43	.066(.044-.088)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감각처리 민감성 측정 도구 HSPS에 대한 기존의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통계측정학적 문제점과 활용성의 한계점을 밝히고 재번안, 재타당화를 실시하였다. 표본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확정된 18문항 4요인의 설명량, 내적 합치도, 요인간 상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표본B에서 4요인 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각 요인과 HEXACO 성격요인, BIS/BAS 체계, 우울, 불안 관련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통해 수렴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약 2개월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한국인 민감성의 양상을 분류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단축형 10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타당화 연구의 한계점을 연구절차를 통해 보완하였다. 기존 타당화 연구의 분석 대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Smolewska 등(2006)과 유사한 22.02±3.53세의 대학생을 포함하는 만18~68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대학생과 일반성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연구 절차에 있어서도 원척도 개발자의 허가와 역번역 과정을 거쳐 원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려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가능하면 자세하게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되 응답자의 반응 특성을 신중하게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9항목을 삭제하여 모형 적합도와 설명량이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조금 높았고, 눈치 요인이 구분되었다. 아울러 원척도 개발의 주요 개념인 BAS/BIS와 HSPS 및 4요인간 상관분석을 통해 한국인 민감성의 특성은 BIS, BAS 모두와 상관이 있고,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거나 쉽게 흥분하거나 눈치를 보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유형은 BIS와 BAS가 함께 활성화되며, 심미적인 민감성이 높은 유형은 BAS가 더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 척도의 활용을 돕기 위해 Pluess 등(2018)이 활용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민감성이 4계층, 난초와 건강한 난초, 튜립, 민들레로 분류됨을 밝혔고, 고-중-저 민감 집단에 각각 25.7%, 54.7%, 19.5%가 속함을 확인하였으며, 탐색적 절단점(5.25와 4.31)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HSPS 타당화 연구에 비해 체계적인 통계측정 절차를 거쳐 분석하였고, 관련 자료를 구체적이고 폭넓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HSPS-18은 주요 선행연구인 Smolewska 등(2006)의 EOE, LST, AES 3요인에 눈치를 추가한 4요인으로 확인되었다. Aron과 Aron(1997)은 단일요인으로 HSPS를 개발하였고, Smith 등(2019)의 3요인을 지지하면서도 하위척도간 신뢰도가 낮은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일요인으로서 유일하게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된 Hanes(2016)의 연구에서 CFI=.64로 적합도가 매우 낮았고 설명량은 23.7%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단일요인을 가정하면 CFI=.57, 설명량은 23.44%로 나타나 Hanes(2016)를 지지하므로, HSPS는 단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 결과에서 눈치(.45), AES(.62) 요인의 내적 합치도가 낮았고, 특히 AES는 다른 요인과 상관관이 지나치게 낮았다(EOE=0, LST=.25, 눈치=.27). 이는 AES의 내적합치도가 .57, AES와 LST, EOE의 상관관이 각각 .02, .06인 Takahashi (2016)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다요인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하면, HSPS는 다요인 척도이고 내적 합치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상관분석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4요인 중 EOE와 AES는 분명히 상반되는 차이가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AES에 대한 선행연구들(Liss, Mailloux, & Erchull, 2008; Smolewska et al., 2006; Takahashi, 2016)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AES는 민감성의 긍정적 특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요인임을 밝혔고 EOE는 더욱 부정적인 특성으로 부각 되었다. Aron(1997)은 민감성이 내면적으로 풍요롭고 복잡한 현상으로 경험되므로 스스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주로 AES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본의 Takahashi(2016)도 AES 요인에 대해 정신생활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편이 더 설명력이 높으나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해 그대로 AES로 명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건강한 난초 계층의 특성과 Jung(1913, 1921)의 민감한 사람, 즉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종합하면,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깊은 내면적 활동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내외부의 자극에 압도되어 혼란스럽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타고나는 중추신경계의 예민성이나 자각 및 공감력, 깊은 처리의 종류와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데다, 자신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발달 혹은 적응상의 다

양한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HSPS의 하위요인 내/간에는 복합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일차원 다요인보다는 다차원적 측정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셋째,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4개의 하위요인 간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HSPS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내향적이고 (부정적)정서성은 높으며, 대인관계에서 너그럽고 참을성 있는 경향인 원만성이 낮았다. 특히 EOE 요인은 가장 내향적이고 (부정적)정서성이 높으면서 원만성과 성실성이 낮았다. 즉, EOE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융통성이 부족하고 지적 호기심이 낮으며 목표를 세워 관리하면서 신중하고 성실하게 일하기 어렵고 4요인 중 가장 우울,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BIS가 활성화되고, BAS의 하위 요인 중에는 보상 민감성만 높기 때문에 즉각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잠재적 보상을 기대하거나 목표를 추구하려는 열망이 낮다. 그러므로 높은 EOE는 다른 요인에 비해 민감성의 부정적 특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LST와 눈치는 BIS와 BAS의 하위 요인 모두와 정적상관이었고, 외향성 중에서는 사회적 표현성과 활력에서만 부적 상관, EOE에 비해 우울, 불안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유사점이 있었다. 그러나 LST는 EOE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정적)정서성이 상당히 높는데 비해, 눈치는 정서성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두려움, 불안과는 오히려 부적상관이었다. 특히, 성실성의 하위요인에서 LST 점수는 완벽성과 정적상관, 신중성과 부적상관인데 비해, 눈치는 치밀성을 제외한 근면성, 완벽성, 신중성, 성실성 전체와 정적상관을 보였

다. 즉, LST와 눈치는 모두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지만, LST는 역치가 낮아서 자극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어려움을 내포하는 데 비해, 눈치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하여 성실하게 대처하려는 특성으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AES는 다른 세 요인 모두와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AES 요인은 BIS와 상관이 없고 BAS가 주로 활성화되며 외향적, 개방적이고 성실성이 높다. 불안에 민감하지 않고 타인의 정서적 지원도 덜 필요로 하며, 특히 우울,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HEXACO를 개발한 이기범과 Ashton(2013)은 개인이 직면한 환경에 대처하는 노력 및 전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 높은 AES는 다른 세 요인에 비해 특징적으로 개방성과 외향성이 높고, EOE, LST에 비해 성실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높은 AES는 섬세하고 유려한 대처방식으로써 민감성의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이런 결과는 3요인의 주요 선행연구인 Smolewska 등(2006)에서 민감성이 성실성, 개방성과 상관이 없다는 결과와 상충한다. 캐나다에서는 민감성이 그다지 긍정적 특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이 있고(Chen, Rubin, & Sun, 1992), 캐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Smolewska 등(2006)의 연구는 민감성의 긍정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내적합치도와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잠재계층분석 결과 K-HSPS-18을 통한 민감성 분류는 4계층, 난초(22.6%), 건강한 난초(3.1%), 튼튼(54.7%), 민들레(19.5%)였다. Lionetti 등(2018)의 결과와 비교

할 때 고민감(25.7%)에 해당하는 난초와 건강한 난초가 세분된 점이 특징적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중추신경계의 예민성을 높게 타고난 사람 중에서도 환경 자극에 압도되어 불쾌하거나 수행이 저하되지 않고 삶의 미적이고 섬세한 측면과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내면적으로 깊이 처리하는 건강한 민감성을 지닌 계층이 3.1%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Lionetti 등(2018)과 Pluess 등(2018)은 대략 30%, 40%, 30%의 분포로 고민감, 중민감, 저민감을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 25.7%, 54.7%, 19.5%이고, 단축형 27%, 52.7%, 20.3%로 상대적으로 저민감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Lionetti 등(2018)에서의 절단점은 각 4.66, 3.71인데 비해 본 연구의 절단점은 5.25, 4.31, 단축형에서 5.24, 4.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는 한국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 높은 민감성을 타고났거나, 민감성이 너무 낮아서 적응하기 어려운 문화적 배경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민감성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체크한 참여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는 사회불안을 진단하는 역치가 높은 것처럼(최명희, 김진숙, 2019) 주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인정하는 역치도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비율 및 절단점, 상관분석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삭제된 문항의 특성과 눈치 요인 등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민감성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Aron과 Aron(1997)은 민감한 사람의 매우 주요한 고유성으로 깊은 정보처리를 통해 풍요롭고 복잡적이며 양심적인 특성을 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HSPS 점수는 HEXACO 정직/겸손성의 여러 요인에 대체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동양 문화를 공유하는 일본에서는 12번(당신은 양심적인가요?) 문항이 AES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을 제거할 때 오히려 전체 척도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양심을 경험하는 현상에 있어 한국인만의 차별적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환경자극의 침범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하는 문항(5, 18, 24번)이 모두 제거되었다.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높은 절단점이나 저민감도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한국인은 대체로 민감성이 높아서 민감함이라는 심리내적 현상을 중요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거나, 집단주의 문화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느라 자기돌봄 행동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은 네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눈치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눈치는 한국 고유의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눈치를 통한 상호작용, 숨은 의도와 미묘한 낙양스를 알아차리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명명하였다. 눈치 보기 혹은 눈치 차리기는 한국인의 관계문화 맥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이다(이종주, 김진숙, 2019). 또한 EOE, LST, AES 3 요인을 지지하는 선행연구(Pluess et al., 2018; Smolewska et al., 2006; Takahashi, 2016)와 본 연구에서 추출한 문항을 비교해 보면 유독 한국의 EOE 문항에는 모두 ‘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특이점이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일 중심적인 문화, 타인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잘 해내야 하는 문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 문화적 특성이 한국인의 민감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상 한국판 HSPS 재타당화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문대생이나 경상권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진 경우로 제한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을 때, 비교 가능한 대부분의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 $m=4.92$ )이 남성( $m=4.55$ )보다 더 민감했고, EOE와 AES, LST, 눈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일본판 HSPS 타당화 연구(Takahashi, 2016)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여성 $m=4.69$ , 남성 $m=4.37$ ). 하지만 원척도 개발자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문항으로만 HSPS를 구성했다고 밝혔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을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민감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생물학적 발달의 차이인 것인지 혹은 민감성을 수용하고 발휘하기 어려운 문화적 압력에 기인한 것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물인 K-HSPS-18을 구조방정식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모형 적합도에 다소 한계가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Aron과 Aron(1997)의 척도 개발 연구(47-54%)와 비교할 때 설명량(53.19%)이 양호하고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모형 적합도도 적절한 수준이다. 즉, 유일하게 높은 모형 적합도를 얻은 캐나다의 Smolewska 등(2006)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HSPS 연구에서 모형 적합도 및 요인간 상관, 설명력이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HSPS의 통계적 한계를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인 단축형 K-HSPS-10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K-HSPS-10은 요인의 복합적인 특성, 낮은 공통성으로 인해 AES에 두 문항만 포함하는 제한점이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척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민감성의 복합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척도 개발의 필요성도 시사된다.

셋째, K-HSPS-18은 한국인 민감성의 장점이거나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 문화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 욕구에 대한 자각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타인의 의도, 공동체의 방향을 더 중요시해왔다(윤영돈, 유병열, 2014). 이런 점은 때로 개인에게 적응적이고 유리한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 공동 운명체에 대한 인식과 같은 ‘깊은 처리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 다만 한국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성격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 타인의 지각과 평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나 역할을 통하여 인식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어나는 그대로 자각하고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눈치와 체면을 통해 걸러진 것을 경험할 수 있다(황상민, 이란희, 2010).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눈치 요인이 이런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이 외에도 한국인만의 감각 인식 및 깊은 처리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민감성의 특성을 충분히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형 민감성 질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타당화된 성인용 민감성 척도를 통계측정학적으로 보완하여 재번안, 재타당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민감성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특수하게 고려하여야 할 기질이자 성격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심리학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척도와 절단점 및 관련 논의들은 추후 민감성과 관련된 이론과 상담 실제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지 (2019). 감각처리 민감성이 층간소음 중 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아미 (2019). 감각처리 민감성과 자기수용, 정서경험의 관계: 수용적 태도와 수용처치 효과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 송지은, 조은영 (2020).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1(1), 53-75.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영일, 김영준, 김경일 (2019). 시간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 요인의 탐색. 인지과학, 30(1), 51-83.
- 김영준 (2019). 인지 과제 수행에서의 개인차 속성의 효과: 웹기반 인지 실험실 개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4), 2051-2070.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 김혜리 (2017). 감각처리 민감성,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귀인 및 소음중지요구 수용예상이 층간소음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김종남 (2018).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877-908.
- 유태용 · 이기범 ·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윤영돈, 유병열 (2014).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을 위한 인문치료적 접근. *윤리연구*, 94, 1-38.
- 이경희 (2017). 우울과 불안증상 취약성개입에 대한 예비연구: 인지행동치료와 수용전념치료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33-53.
- 이기범, Ashton, M. C. (2013). *H팩터의 심리학*. 서울: 문예출판사.
- 이수경, 양혜정 (2019).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가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정서조절 전략과 탄력성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8(1), 331-359.
- 이종주, 김진숙 (2019). 대학생의 대인관계의 적응과 발달에서 눈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상담학연구*, 20(4), 209-237.
- 이효정 (2019). 성격 6요인(HEXACO)과 공감 능력, 공감에 관한 정신적 노력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지희 (2007). HSPS(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국내 타당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희, 김진숙 (2019).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645-670.
- 황상민, 이란희 (2010). 자기 성격에 대한 타인 평가 인식 유형: 성격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탐색. *주관성 연구*, 20, 121-143.
- Aron, A., Ketay, S., Hedden, T., Aron, E. N., Markus, H. R., & Gabrieli, J. D. (2010). Temperament trait of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moderates cultural differences in neural respons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5, 219-226.
- Aron, E. (2004). Revisiting Jung's concept of innate sensitiveness.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49, 337-367.
- Aron, E. (2006).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Jung's concept of sensitiveness. *Journal of Jungian Theory and Practice*, 8(2), 11-43.
- Aron, E. (2013). *섬세한 사람에게 해주는 상담실안 이야기* (도인종 역). 서울: 디어 센서티브.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Aron, E. (2017).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노혜숙 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원전은 1996년에 출판).
- Aron, E., & Aron, A. (1997).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introversion and emoti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45-68.
- Aron, E., Aron, A., & Jagiellowicz, J. (2012).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 review in the light of the evolution of biological respons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262-282.
- Ashton, M. C., & Lee, K. (2001). A theoretical

- basis of major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27-353.
- Belsky, J. (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s: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 182-186.
- Belsky, J., Jonassaint, C., Pluess, M., Stanton, M., Brummett, B., & Williams, R. (2009). Vulnerability genes or plasticity genes? *Molecular Psychiatry*, 14, 746-754.
- Booth, C., Standage, H., & Fox, E. (2015).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24-29.
- Boyce, W. T., & Ellis, B. J. (2005). Biological sensitivity to context: An evolutionary-developmental theory of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stress reactiv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2), 271-301.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hen, X., Rubin, K. H., & Sun, Y. (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3(6), 1336-1343.
- Del Giudice, M., Ellis, B. J., & Shirtcliff, E. A. (2011). The adaptive calibration model of stress responsibility.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5(7), 1562-1592.
- Ellis, B. J., & Boyce, W. T. (2011).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the environment: Toward an understanding of sensitivity to developmental experiences and contex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1), 1-5.
- Ershova, R. V., Yarmotz, E. V., Koryagina, T. M., Shlyakhta D. A., & Tarnow, E. (2018). Operationalization of the Russian version of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RUDN Journal of Psychology and Pedagogics*, 15 (1), 22-37.
- Evans, D. E., & Rothbart, M. K. (2008). Temperamental sensitivity: Two constructs or on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08 - 118.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64).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San Diego, CA: EDITS.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Eysenck, H. J., editor. *A Model for Personality*. New York: Springer, 246-276.
- Gray, J. A., & McNaughton, N. (2000).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An enquiry into the functions of the Septo-Hippocampal System*,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even, C., Lionetti, F., Booth, C., Aron, E., Fox, E., Schendan, H., Pluess, M., Bruining, H., Acevedo, B., Bijttebier, P., & Homberg, J. (2019).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sensitivity: A critical review and development of research agenda.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98, 287-305.
- Hanes, A. (2016). *The impact of social anxiety and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on quality of lif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chigan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Michigan, USA.
- Homberg, J. R., Schubert, D., Asan, E., & Aron, E. N. (2016).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serotonin gene variance: Insights into mechanisms shaping environmental sensitivity.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71, 472-483.
- Jung, C. (1913).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Collected Works*, Vol. 4. Princeton, NJ: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1921). Psychological types. *Collected Works*, Vol. 6. Princeton, NJ: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4), 668-674.
- Lee, K.,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 329-358.
- Lionetti, F., Aron, A., Aron, E., Leonard Burns, G., Jagiellowicz, J., & Pluess, M. (2018). Dandelions, tulips and orchids: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low-sensitive, medium-sensitive and high-sensitive individuals. *Translational Psychiatry*, 8(1), 24.
- Liss, M., Mailloux, J., & Erchull, M. J.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lexithymia, autism, depression,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255-259.
- Liss, M., Timmel, L., Baxley, K., & Killingsworth, P. (2005).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parental bonding,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1429-1439.
- Listou Grimen, H. L., & Diseth, Å., (2016).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Factors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and their relationships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23(3), 637 - 653.
- Meyer, B., Ajchenbrenner, M., & Bowles, D. P. (2005). Sensory sensitivity, attachment experiences, and rejection responses among adults with borderline and avoidant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 641 - 658.
- Monroe, S. M., & Simons, A. D. (1991). Diathesis-stress theories in the context of life stress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Bulletin*, 110(3), 406-425.
- Pluess, M. (2015). Individual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sensitivit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9(3), 138-143.
- Pluess, M. (2017). Vantage sensitivity: Environmental sensitivity to positive experiences as a function of genetic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85(1), 38-50.
- Pluess, M., Assary, E., Lionetti, F., Lester, K. J., Krapohl, E., Aron, E. N., & Aron, A. (2018). Environmental sensitivity in children: Development of the Highly Sensitive Child Scale and identification of sensitivity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51-70.
- Pluess, M., & Belsky, J. (2009).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experience: The case of child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4), 396-40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mith, H. L., Striken, J., & Erford, B. T. (2019). Clinical and research utility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41*(3), 221-241.
- Smolewska, K. A., McCabe, S. B., & Woody, E. Z. (2006).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The components of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their relation to the BIS/BAS and “Big F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269-1279.
- Sobocko, K., & Xenlenski, J. M. (2015). Trait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Distinctive associations for different aspects of sensi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44-49.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Takahashi, A. (2016). Development of Japanese version of the 19-item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HSPS-J19). *Japanese Journal of Research on Emotions, 23*(2), 68-77.

원 고 접 수 일 : 2021. 01.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5. 20  
계 재 결 정 일 : 2021. 07. 01

## Re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K-HSPS-18)

**Ok-Sun Son**

Clinical Psychology Center EEUM

**Jinsook Kim**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reevaluate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The scale was administered online to 925 Korean adults. 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n=448$ ), 18 of the 27 items were extracted, and 4 factors were derived: Ease of Excitation, Aesthetic Sensitivity, Low Sensory Threshold, and Nunchi.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n=477$ ), the 4-factor structure was confirmed, and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were verified. In the latent class analysis, the 4-layers: orchids (22.6%), healthy orchids (3.1%), tulips (54.7%), dandelions (19.5%); and cut-off points (5.25, 4.31) were derived. The results reverified that the K-HSPS-18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The shortened version (K-HSPS-10) was also found to be valid; however, in previous studies, Aesthetic Sensitivity was a differential dimension, suggesting the need for a multidimensional scale. Furthermore, the Nunchi factor, 4-layers, and deleted items strongly suggest that Koreans' sensitivity has culturally unique characteristics.

*Key words* :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Highly Sensitive Person,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HSPS